

시대착오가 된 가족드라마, 삶이 바뀌었다



과연 가족드라마는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건 현재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때문이다. 한 때 '가족이 최고'라는 가족주의 시대는 이제 1인 라이프가 트렌드가 된 시대를 맞아 조금씩 저물고 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KBS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은 제목에서 묻어나듯 그 '내편'이 바로 '가족'이라는 걸 말하는 드라마다. 병든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어쩌다 살인을 저지르게 된 아빠와 그의 형제 같은 동생이 대신 거둬 기른 딸의 이야기. 이 두 인물에서 연상되는 고전적인 캐릭터를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아빠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고 딸은 신데렐라다. 업종이로 틀어온 구박하고 급기야 양부가 사망하게 되자 이 불쌍한 신데렐라는 집에서 쫓겨난다. 하지만 이 신데렐라가 재벌가

의 왕자님과 결혼할 것 같은 낚시를 감지한 계모는 이를 통해 한뼘 잡으려 한다. 그간 키워준 값을 치르고 딸을 데려가려는 것이다. 불쌍한 장발장 아빠는 어쩌다 그 재벌가 왕자님 택의 기사가 되어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본다. 구박받고 자란 딸이 왕자님과 결혼하기를 바라고, 겨우 겨우 결혼 승낙을 받아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 여전히 하나뿐인 내편은 가족일까

이 정도면 대중이 드라마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제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내편 하나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내편'이 다름 아닌 핏줄이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다. 우리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개발주의와 함께 최고의 가치관으로 주입받았던 '가족주의

의'가 이 드라마에는 뻥뻥까지 깊게 스며 있다. 이 드라마에도 빠지지 않았던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코드는 바로 가족주의 시대 최고의 흥행 방정식이 됐다. 결국 출생의 비밀이 말하는 건 믿을 건 핏줄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던가. 그런데 과연 인기가구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시대에 이런 가족주의가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방영됐던 소현경 작가의 KBS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은 사실상 저물고 있는 가족주의 시대의 새로운 풍경을 담아낸 바 있다. 이 드라마에도 출생의 비밀 코드가 등장했고 가족이 등장했지만, 그걸 다루는 방식은 사뭇 달랐다. 그것은 모두 가족이나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 같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관점이었다. 이 드라마에서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드라마 판도 바뀌

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르러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기타 연주자의 꿈)을 하도록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담는 가치는 어느 쪽에 있을까. 여전히 '하나뿐인 내편'인 가족인가 아니면 '황금빛 내 인생'인가.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제목에는 지난 시대의 가치와 우리 시대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투영돼 있다. 즉 지난 시대의 가치는 '황금'으로 대변되는 성공과 신분상승에 더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그 많은 신데렐라와 왕자님들이 등장했고, 성공과 신분상승이 단번에 이뤄지는 가족주의 시대의 새로운 풍경을 반대하는 양가 부모들의 갈등이 드라마의 주된 구조로 반복됐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황금'이 대변하는 성공보다는 '내 인생'이 말해주는 '행복'에 포인트를 맞춘다. 재벌가에 들어갔지만 전혀 행복해하지 않는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결국 그 신데렐라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 그는 그곳을 나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소해 보여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 주는 목공업을 하며 그는 만족할 만한 '내 인생'을 찾는다.

이것은 1990년대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동시에 꺼져버린 개발시대의 '성공신화'와 함께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개인적 행복'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말해 준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풀이갈 가족이 있다는 가족주의 시대의 가치는

'가족'을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도깨비방망이처럼 사용한 바 있다. 가부장제의 부당함도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라며 받아들여 했고, 이런 가치는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가족경영'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됐다. 하지만 가족주의가 표방하는 불합치와 부조리에 대한 감당은 그 신화가 거품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내면서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 됐다.

대신 고개를 든 건 합리적 개인주의의 가치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됐다. 결국 공동체도 개인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행복이란 개개인이 행복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게 우리 시대 대중들의 새로운 깨달음이다. 힐링, 윌로, 소확행, 워라벨 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쏟아져 나왔다.

드라마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성패가 갈린다는 점에서 당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야다. 그런 점에서 우리네 드라마의 시대적 변천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 가족에서 개인으로 라이프스타일 변화

1970년대에 최고조에 이르렀던 신파극의 진풍치가 말해 주는 건 가부장적 가족 체계에 대한 소극적인 고통의 투로와 그 시스템에 대한 내면화였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도 이

어지고 있는 가족드라마는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이 결혼 같은 걸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던 시대의 풍경을 담고 있다. 1991년 방영돼 큰 화제가 됐던 '사랑이 뭐길래' 같은 드라마가 대표적이다. 또한 가족드라마와 쌍둥이처럼 한 시대를 이끌어온 멜로드라마 역시 최근까지도 신데렐라나 캔디가 변주되는 신분상승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그 신분상승은 결국 결혼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 멜로드라마는 가족드라마와 맞닿는 면이 있었다. 1978년에 도 방영됐고 1999년에 또 리메이크됐던 '청춘의 덫' 같은 드라마가 대표적이다. 이 드라마는 남자의 성공을 뒷받침했지만 배신한 남자에게 복수하려는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가족드라마와 멜로드라마 전통을 이어받은 김수현 작가의 시대는 조금씩 저물어 가고 있다.

가족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직업 등이 중요해진 장르드라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 이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질문해 보자. 과연 여전히 가족드라마는 유효할까. 가족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네 드라마의 중요한 특징인 건 그만큼 가족주의 시대의 잔상이 얼마나 드라마 전체에 미친 영향이 컸던가를 말해 준다. 그래서 위 가족이 사라진 않을 듯싶지만 가족이 최고라거나, 아니면 결혼이 지상과제라는 식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공감할 수 없는 시대적 유행이 돼 가고 있다. 그 비어가는 자리를 조금씩 채우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개인의 위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콤플렉스 박살 내” ‘전참시’ 이영자, 감동 전한 ‘토끼와 거북이’



개그우먼 이영자가 국군 장병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1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이영자가 군 부대에서 이습우화 '토끼와 거북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이영자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냐. 나중에 거북이가 이겼냐. 져냐. 저는 늘 들으면서 생각했다. 거북이는 왜 경기를 한다고 했을까. 누가 봐도 토끼와 상대가 안 되지 않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다. 제 답은 끝나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영자는 "가장 힘들었던 건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왜곡된 열등감이었다. 우리 집이 생긴 가게를 해서 비린내 나는 게 콤플렉스였다. 지금까지도 (코를 풍층대는 게) 습관이 돼있다. 늘 왜곡되고 굴욕지게 봤다"라며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특히 이영자는 "우리 어머니는 남이신호사상이었다. 나는 나중에 알았다. 닭 뒷다리가 그렇게 날개는 아버지 거. 나는 목살을 준 거다. 엄마 시대 때는 이들을 못 날

으면 쫓겨났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빠와 오빠를 사랑했다. 누가 좋아한다고 하면 어색하고 민망하다. 남자가 좋아한다고 하면 '급전이 필요한가' 싶다"라며 솔직하게 고백했다. 또 이영자는 "콤플렉스라는 게 무섭다. 기왕 군대 왔으니까 어차피 이 시간은 채워야 하지 않냐.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1년 8개월 동안 스스로한테 집중해서 물어보았으면 좋겠다. 내 열등감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서 박살 냈으면 좋겠다. 콤플렉스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망가질 수 있다"라며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자는 "제 결론은 그렇게 됐다. 거북이는 콤플렉스가 없었구나. 열등감이 없었구나. 최선을 다하는 것만 할 일인 거다"라며 털어놨다. 송성호 역시 국군 장병들과 함께 강연을 들었고, "본인이 겪어왔던 걸 말씀하시더라. 강연 들으면서 병사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제 일이다. (병사들이) 수첩에 적기도 하더라. 제 기억에는 조는 친구들이 없었던 거 같다"라며 감동했다.

“韓 힙합 사상 최다 인원” ‘쇼미777’, 역대급 리믹스 음원 탄생



케이بل체널 엠넷 '쇼미더머니 777' 경연곡 '119(Prod. GRAY)'가 한국 힙합 사상 최다 인원이 참여한

역대급 리믹스 버전으로 탄생했다. 2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그레이(GRAY)가 프로듀싱한 '119 REMIX'가 발매됐다. 지난 1일 AOMG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기습 공개된 두 편의 '119 REMIX' 모션 티저에는 다양한 힙합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 봉에 타는 모습 이 담겨 궁금증을 유발했다. 의미심장한 모션 티저를 잇따라 공개하며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담은 건지 음악팬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킨 가운데, 역대급 결과물의 탄생을 알리며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쇼미더머니 777' TOP8과 그레이가 참여한 원곡과는 달리 '119 REMIX'에는 무려 51명의 국내 힙합 아티스트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는 대한민국 힙합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초유의 기록으로, 31명의 래퍼가 참여한 다이나믹 듀오의 '동진 한 뉘 Remix'보다 더욱 거대한 스케일이다. 지난해에는 '쇼미더머니6' 종영 후 최종 20인이 참여한 '동전한뉘 pt.2(Remix)'가 공개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음력 10월 26일)

<p>▶ 쥐띠 회색을 감수하고 노력한 대가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니 뒷사람 인심도 받고 자존심도 회복할 기회다. 바, 사, 오 성씨는 의연한 자세로 겸손하게 대처함이 좋을 듯. 3, 5, 12월생은 애정에 고통받았다가 마음만 상한다.</p>	<p>▶ 용띠 허세와 위장된 처세로 기고만장하면 곤경에 처해도 협조자가 없겠다. L, O, 천, 흥 성씨는 분수를 알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 주위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을 사귀려 하지 말고 지조를 지키라. 2, 6, 9월생은 정말 힘들다.</p>	<p>▶ 원숭이띠 사업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구설에 오르거나 손해 볼 우려가 있으니 매사 세심히 신경 써 대처해야 한다. 사, 자, 흥 성씨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북쪽 누명을 조심하라.</p>
<p>▶ 돼지띠 자기 재주만 믿다가 행운을 놓칠까 우려된다. 방심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 현재 위치를 지키자. 동쪽과 남쪽의 기, 사, 흥 성씨가 사업을 의논해 오는 것은 내게 불이익이 되는 대화다. 1, 5, 12월생은 오락에 신경 쓰면 올게 된다.</p>	<p>▶ 닭띠 O, 사, 표 성씨는 팽팽하고 정직한 성품 덕에 찬사를 듣지만 때로는 성급한 성격 탓에 일을 그르칠 때도 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월감으로 큰일을 놓칠 수 있다. 서쪽 거래는 오늘 중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p>	<p>▶ 개띠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고 무슨 일든 욕심내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하면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행운이 도래한다. 8년생 L, O, 천 성씨는 자기 말에 책임을 다하라. 5, 11월생은 함께 사는 사람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헤어진다.</p>
<p>▶ 호랑이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 된다. 1, 3, 4, 5월생 새로운 각오로 몇 배 노력이 필요하다. 풀리지 않는 일은 친지와 의논하면 풀릴 듯. 사, 오, 흥 성씨는 한 이성을 두고 다른 동성과 잘라리하게 될 듯.</p>	<p>▶ 양띠 계획한 일이 부진하다고 중도에 포기하면 뿌려 놓은 것도 수확할 수 없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진하면 결실을 크게 얻게 된다. 2, 4, 7, 11월생 친구 간에도 유대관계를 돈독함이 좋다. 동쪽 사람이 도움 줄 듯. 기, O, 흥 성씨 남쪽에 행운.</p>	<p>▶ 돼지띠 동서로 분주하지만 할 뿐 결실이 없다. 알아주는 이 없어 때로는 외롭겠지만 뜻을 굽히지 않으면 인정받는 날이 있으리라. 가정은 신병을 조심. 2, 9, 11월생 분홍색이 길조. 만날 수 없는 인연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구나.</p>
<p>▶ 토끼띠 근면하고 성실한 것은 좋으나 당돌한 성격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지 말라. 시비가 붙는다. 3, 5, 11월생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라. 두 마음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다.</p>	<p>▶ 말띠 직장에서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 찬사도 받고, 승진도 할 운이다. 1, 3, 7, 10월생 주인 의식으로 더 많이 노력하라. 장사는 잘 안되지만 낙심은 금물. 외롭다고 함부로 처신하면 곤란하다. L, 천, 흥 성씨는 남쪽에 길.</p>	<p>▶ 돼지띠 혼자 처리하기 힘든 일로 시달리다 보니 건강을 해칠 염려 있다. 3, 4, 8월생 기, 바, 오 성씨는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 가족과 의논해 해결하라. 5, 7, 11월생은 요즘 부분 별거 많다고 탄 생각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매사 조심하라.</p>